불자 세상보기

대통령 후보자 검증의 불교적 기준

윤세원
인천대교수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세간의 눈과 귀와 입들의 관심은 세 분 유력 대선후보자들의 동정과 당선 가능성 등에 함몰되어 버릴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도 엄중한 자리로 적어도 임기 5년 동안은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하위조직들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이고, 이 구조의 정점에서 특정 영역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축소 재편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선후와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대 이러한 능력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는 필수적인 요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 필수요건들의 결함은 바로 국가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통령이 편향적 시각의 소유자일 경우 파생되는 공동체의 분열 징조를 불교도들은 이 정부 하에서 지겹도록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써야 할 국가적 에너지들이 낭비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 권력행사는 모든 측면에서 공공성과 정당성이라는 명분의 저항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소고기 파동' '행정수도 이전' '내곡동 사저 문제' 등을 통하여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당선이 끝이 아니라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당성과 공공성을 요구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불교에는 통치자의 자질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다. 필자는 불교도들에게 이 가르침들을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싶다. 부처님이 가르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첫째 적법한 선거운동과 공약의 타당성, 둘째는 재산형성의 투명성과 살아온 과정에 투영된 공공성, 셋째 삶의 질 개선 능력, 넷째 도덕적 행위의 솔선수범 여부, 다섯째 정책의 추진능력과 지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모, 여섯째 권력의 비공공적 행사에 대한 억제능력, 일곱째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는 태도, 여덟째

도덕적 행위와 양심
정책 추진 능력과 지혜
정토로 만드는 리더의 기준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 아홉째 약속과 규율에 대한 존중심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법적 잘못은 없다' 고 강변을 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 그러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법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모르는 지각없는 사람들이다. 아들, 처, 동생, 비선조직이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대통령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대통령이다. 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유산들을 업신여기는 후보는 제외대상이다. 과거의 경력에서 관용차 사용 일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봉사활동 경력도 도덕성·공공성·투명성·도덕적 수범성 등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통치자의 자질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권력의 공공성 상실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견제와 윤리적 예방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통치자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아직도 유용한 것이며,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개방된 사회인 오늘날에는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도들은 좋은 대통령의 선출이 바로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검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실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비구니의원연구회에 거는 기대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

예수의 아내가 거론된 고대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신학교수가 발견한 서기 150년경의 문서가 '예수 아내의 복음서' 라는 주장이 발표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예수의 아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몇 해 전 소설 '다빈치 코드' 에서도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라고 주장하여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 조각의 첫째 문장이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니' 이라고 한다. 만약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여성 기독교인들은 매우 신나는 일임에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금단의 과일을 따먹도록 아담을 유혹한 죄인이다. 그리하여 여성들에게는 열등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굴레가 항상 따라다녔고, 교회나 성당에서 여성은 남성과 결코 평등할 수 없었다. 여성 목사가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요, 여성신부는 아직도 꿈도 못 꿀 일이기에 수녀님들이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신부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불교는 비구니가 비구와 동일한 수행자이자 성직자로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수행을 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옷을 입는다. 심지어는 똑같이 설법도 하고, 대학에서 비구니교수가 비구제자를 가르키기도 하며,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비구니교단이 없는 동남아 불교여성들은 한국의 비구니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매우 부러워한다. 필자는 '샤카디타' 에 두 번 참석하여 많은 동남아 비구니스님들(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비구니승단이 없어 비구니수계를 받지 않은 수행자임)을 만났다. '샤카디타' 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여성불자대회로 1987년 조직되었는데, 한국비구니승가는 1991년부터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는 중요한 대회이다. '샤카디타' 에서 만났던 많은 불교여성들은 한국의 비구니를 보고 놀랐다고 한다. 즉 한국의 비구니는 비구처럼 활기차게 걷고, 비구처럼 목소리도 크고, 비구처럼 키도 크고, 비구처럼 풍채도 당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구니승단조차 사라진 동남아 비구니들에게는 독립적인 비구니승가의 유지. 존속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종단의 비구니차별적인 현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고 또 실망할까?

비구니승가는 오늘날 조계종단에서 같은 출가자이면서도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단지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사 주지가 될 수 없고 중앙종회의원 전체 81명 가운데 10명만이 가능하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에 '비구' 만 할 수 있도록 종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구니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종단의 현실이다. 1994년 개혁종단에 의해 비구니 10명이 중앙종회의원으로 할당받았고, 그로부터 거의 이십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비구니승가의 법적 지위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그리하여 올해 2월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비구니승가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었고, 비구니 참종권을 확대하기 위해 비구니 종회의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제 끝난 191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산중총회법은 비구니승가가 그토록 원하던 산중총회법이 아니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에서 비구니는 비구승의 5분의 1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 5분의 1도 아니다. 기존의 말사 비구니주지스님들은 산중총회에 들어갔는데, 이분들도 포함해서 5분의 1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7분의 1, 혹은 8분의 1이 될 것이다. 비구니는 비구의 5분의 1밖에 자격이 안되는가?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녀차별은 정부가 법으로 처벌하며,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는 여성 30%할당제를 실시하건만, 국가의 법보다 못한 종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종회 기간 중에 비구니승가의 위상 정립과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 가 발족했다니 다행이다.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 는 재가여성불자들이 올바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는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조계종단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비구니종회의원이 비구니권익을 위해 정기적인 연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에 아마도 많은 비구니스님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비구니승가와 재가여성불자가 불교여성으로서 서로 지지하고 비구니승가가 명실상부한 재가여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재가여성불자들에게도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社說

산중총회법 개정 환영한다

옛 속담에 '중 벼슬은 닭 벼슬보다 못하다' 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주지나 사중 소임이 수행하는 데 아무런 득이 없다고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실제 기독교에는 '교회에서 직책은 순교자의 순서를 정하는 것' 이라는 속담이 존재한다.

이는 모든 종교가 스스로의 권력을 경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1994년 종단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주지 선거제도는 18년 간 금권선거 및 선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보여왔다. 잊을 만 하면 일어나는 주지 선거 비리는 세간이 출세간을 걱정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최근 들어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이 선거가 아닌 합의 추대 형식으로의 전환을 명문화 한 산중총회법 개정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계종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닌 만장일치 합의 추대 형식으로 바뀌고, 주지 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다. 산중총회에 비구니 구성원 참여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벌도 명문화됐다.

무엇보다 추천제의 도입과 함께 본사주지 선출과정을 단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시켜 매표행위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종도들은 개정된 법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집행부는 올바르게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스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 추석 태풍 이재민과 情 나누자

곧 있으면 우리민족 교유 명절인 추석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왠지 쓸쓸하다. 유럽발 금융위기, 고유가, 물가 인상의 경제적 어려움과 제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제 16호 산바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됐고, 농작물 피해가 커서 농가가 울상이 됐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정적 요인이 맛물려 있다. 하지만 사회 온정의 열기가 어수선한 정권 교체기에 식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교계의 일선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 노인 복지시설에서도 예년에 비해 추석을 맞아 기업체들의 후원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의 참된 의미는 보름달 같이 풍성한 마음으로 이웃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이 나눔의 정신을 가진다면 추석은 좀더 풍성해 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누어줄 때 느끼는 것이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절약하고 줄여 이웃돕기에 나선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이다.

가족이 함께 만나고 정을 나누는 추석은 특히 가족이 없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기 마련이다.

이들이 '풍성한 한가위' 를 보낼 수 있게 끔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온 정은 곳곳에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웃에 대한 나눔과 관심이 증대 될 때 어려운 이웃도 화답하게 된다.

그 같은 경험이 공동체 의식의 축적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물론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 불교계 종단들도 추석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더욱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농가에게도 우리들의 따뜻한 온정을 모아 보시행을 펼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화제의 신간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